

원희룡 장관, LH 임직원으로부터 청렴과 혁신 다짐 받아

- 자기 이익에 엄격하고 단호할 것, 국민 이익에는 진심과 열정 강조 -
- 임대주택 건설 현장에서 품질 제고 위한 설계 변경 지시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6일(금) LH 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혁신선포·청렴서약식에 참석했다.
 - 이날 LH 사장을 포함한 간부진들은 청렴서약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청렴한 조직으로의 재탄생을 다짐했으며, LH MZ세대 직원들도 국민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전달하였다.
 - 또한 이날 신임사장은 층간소음 제로, 임대주택 품질 제고, 청렴한 조직으로 재탄생 등을 포함한 LH의 자체 혁신방안을 보고했다.
- 청렴서약과 MZ 세대의 약속을 전달받은 원 장관은 “LH 직원이 투기사태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LH 배지를 숨기는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 회의감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들었다”며
 - “그러나 국민들도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기대를 저버린 LH에 대해 실망하고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으며, 이에 대해 LH 간부진 등 선배들이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”고 말했다.
- 이어 “자기들 이익, 집단의 이익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할 것”과 “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LH가 진심과 열정을 바치는 충성심을 발휘해야만 국민들이 다시 인정해 줄 것”이라고 말했다.
 - 또한 “LH가 국민들 질타를 받으면 국토부도 마찬가지로, 국토부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LH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말했다.

- 이어 원 장관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-2BL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층간소음 해소 등 주택품질 제고 계획을 보고받고,
 - “공공임대 아파트는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주거 기반이지만 열악한 품질 등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”이라며,
 - “층간소음 완화, 마감재 개선, 평수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, 신혼부부, 고령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택 건설로 국민들의 공공주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여 국민주거 향상은 물론 저출산·고령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며,
 - 특히, 설계변경을 통해 앞으로 지어질 공공아파트는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2022. 12. 16.

국토교통부 대변인